

## 미얀마 교회 개척 (김경환 선교사)을 시작하면서 (Feb 2022)

2022년도 새해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얼마전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Zoom으로 “코비시대 그리스인의 고난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리더들과 동역자들이 접속하여 말씀을 들었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사태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 현재의 EMC센터 사역을 현지 왕전도사님께 맡겨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EMC센터에 새로 입학한 2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전도사님은 올해 1월 2개의 선교센터를 1곳으로 합병했고, 이제 2월 7일부터 묘족 어린이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2022년 2월 EMC센터에 입주한 어린이들

저희는 화성시 에서 화성 선교교회를 개척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일 애국운동 당시 제암리교회 학살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발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지난 1월 2째 주일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주일 예배에 6-7명 혹은 7-8명이 모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형태의 다문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다문화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멤버들은 한국인, 중국한족, 중국 조선족, 재미교포, 북한 새터민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에는 중국 조선족인 권형제 그리고 김형제와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15년 동안 살면서 중국어를 배웠고 결국에는 한족과 결혼해 살다가 한국에 입국해서 새터민 시설에 살고 있는 새터민 자매가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자매를 통해서 새터민들을 위한 집회나 혹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점심식사와 중국어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네팔인 형제들 10-14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1시간 동안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2곳의 네팔인들 예배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모임이 우리 화성 선교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중 2-3명은 한국어도 곧잘하고 있습니다.



### 네팔인 형제들 예배

가끔 다문화 선교와 이주민 개척교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오신 교회의 선교부 회원들은 "이주민과 다문화 선교, 그리고 코비시대 이후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했고, 김선교사는 두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미얀마 선교보고와 더불어 한국교회 선교의 사명과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화성 선교교회는 중국인 예배와 기타 민족의 이주자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이주민 노동자와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리더로 공부하며 성장하는 장소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통증 환자들에게 침과 부황으로 치료하는 장소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 < 2022 02월 기도제목 >

- 1) 미얀마 EMC센터의 학생 26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군부 쿠데타가 속히 종결 되도록.
- 2) 선교교회 개척에 예비된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 3) 교회 개척에 필요한 피아노, 각종악기, 마이크, 에어컨, 현금통 등의 시설들, 특히 렌트비가 마련 되도록.
- 4) 우리 선교교회가 장차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활동 장소로 활용 되도록.
- 5) 선교교회를 위해 후원할 기도의 용사와 후원자 및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6) 김선교사 부부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이주민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7) 장차 Zoom 강의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중국과 미얀마의 사역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022년 2월 23일  
김경환 선교사 드림

전화: 010-8409-7072 / Email: kimpaul55@hotmail.com